

##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 2. 아침묵상

여름동안 아침묵상을 쉬기로 했습니다. 아침묵상은 9월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름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의 예배와 경건생활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지속됨으로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중보합니다.

## 3. 뉴저지 어머니 학교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갖게 되는 뉴저지 어머니 학교를 가을에  
저희 교회 건물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차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지난 주 (7/16)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240.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유영환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후 6:14-7:1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구별된 기록이 가능하려면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주일대표기도

7월 30일	8월 6일
최빅토리아	윤하나

###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화-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 사랑 받는 강아지는 자기가 사람인줄 안다

요즘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반려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 '애'자가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완'이라는 한자가 희롱하다 놀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보니 직역을 하면 사랑해서 데리고 노는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반려견, 즉 '따르고 벗하다' '동반자'라는 의미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반려견을 키워 보신 분들은 바로 공감하시겠지만, 가장 좋은 점은 그 누구보다 나를 반겨준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들은 주인이 나갔다 집에 돌아오면 문앞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줍니다. 세상에 어느 자식이 어느 배우자가 그렇게 반겨줍니까? 그러니 안 이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반려견들이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가다가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강아지들이 뭔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는 강아지들을 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인에게 평소애 많이 혼나거나 엄하게 길러지는 강아지들은 사람을 보면 무서워합니다. 뭔가 당당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한국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전 주인에게 학대를 받다가 저희 집에 입양온 강아지였습니다. 첨에 아무리 맛있는 걸 주고 이뻐해 줘도 강아지가 힘이 하나도 없고 주눅들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참을 지극정성으로 키워더니 점점 이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사랑을 받으면 강아지나 사람이나 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나다'라는 우리 말이 풀어서 쓰면 '혼이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지나치게 혼이 나면서 크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늘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고 이해를 받고 용납되어짐을 경험하면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혼이 살아납니다.

더 늦기 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으로 품어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족을 품고 사랑할 때 가정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